

## 한국사회정책 편집인의 글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총 아홉 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정책: 호주의 경험과 시사점”(정용문)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호주의 정책 경험이 한국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효율성을 불균형적으로 강조하는 접근법이 억압적 사회보장 행정을 조장하고, 진정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과 직장 인간관계의 변화”(김수영·강명주·권하늬·이서경)는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작업공간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혼 노동자 10명을 심층 면접한 연구 결과는 재택근무를 계기로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재편되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종과 직종에 따라 재택 근무 경험과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원격근무가 보편화 되었을 때 제기되는 사회정책적 이슈를 탐색했다는 학문적 기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과 노동공급의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김정욱·원승연)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를 다룬 최근의 이론 모형들과 관련된 실증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기본소득의 크기, 재원조달 방법, 기존 복지 제도 폐지 여부에 따라 노동, 고용, 산출량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근로 동기를 약화할 수 있는 점은 기본소득의 찬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의 조절 효과”(김

진석·오연희·신동인)는 2013년도를 전후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복지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무상 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오히려 낮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복지 인식 형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기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안정 노동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 객관적·주관적 불안정성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이병훈·김은경·김한나)는 불안정 노동 지수를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산출하고 양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을 고용 불안을 넘어서 일자리 불확실, 소득 불충분, 노동조건 취약, 사회적 보호 불안정이라는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불안정 노동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서로 일치하는 동조효과(synchronization effect)의 조응관계를 갖지 않고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이나 일자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시간주권의 정치: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사례”(최희선·신진욱)는 독일 노동시간 유연화의 핵심 제도인 근로시간계좌제가 노동자 시간주권, 노사 권력관계,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갖는 효과와 함의를 분석합니다. 제도의 실제 활용에서 기업의 활용 목적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 자율성과 일과 삶 균형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제도 활용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개편 방향이 정책적,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독일 사례의 교훈을 참조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 분석: 능력주의의 작용을 중심으로”(김고은·김경근)는 2021년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가 수집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이었지만, 평등주의 태도를 지니거나 사회를 신뢰할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 채용에서는 거주지,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능력주의 확산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기 위한 그간의 사회정책적 노력에 도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COVID-19 재난과 버스운수업 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층적 불안정노동”(고태은·이승윤)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 주목받은 필수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경험을 다룹니다. 버스운수업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정노동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어떻게 심화되었

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운수업 노동자들은 민영 중심의 운영체제 속에서 임금 및 고용 불안정, 노동통제, 과로노동 등 일터에서 불안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었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 까지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연쇄적 전이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이라는 공공성과 민영이라는 조직 간의 모순이 필수노동자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흥미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정책: 덴마크 소셜 페다고지”(백경훈)는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소셜 페다고지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덴마크 사례를 소개합니다. 덴마크는 아동을 보호, 관리 대상이나 규율,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부모, 교사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탈성별화된 가능성을 가진 제3의 새로운 전문적 실천으로서 아동 돌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덴마크 아동돌봄정책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덴마크 사례가 우리나라 아동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호도 두 편의 서평을 싣고 있습니다.

남기곤 교수(한밭대학교 경제학과)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문제의 현주소와 원인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밝히고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김희삼(2021),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를 논평해 주셨습니다.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에서 소외된 독거 노인과 고독사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우에노 지즈코(2022),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가 한국 사회 노인 돌봄에 주는 함의를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3호에 실린 논문과 서평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 9. 30

편집위원장 윤자영, 백학영